

碩士學位請求論文

國際化時代의 道德教育의 새方向에 관한 研究

指導教授 高 性 俊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國民倫理教育專攻

李 在 奉

1994年 8月

# 國際化時代의 道德教育의 新方向에 관한 研究

指導教授 高 性 俊

이 論文을 教育學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1994年 6月 日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國民倫理教育專攻

提出者 李 在 奉



李在奉의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1994年 7月 日

審査委員長  
審査委員  
審査委員

安 邦 範  
梁 性 俊  
同 性 俊

< 초 목 >

## 國際化時代의 道德教育의 新 方向에 關한 研究

李 在 奉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國民倫理教育專攻  
(指導教授 高 性 俊)

지금 우리는 세기전환적 변혁기에 들어서 있다. 그동안 우리에게 친숙했던 인간에 대한 여러가지 가정들, 그리고 사회기능, 사회작동 원리 등이 모두가 급속하게, 그리고 근본적으로 바뀌어 가는 공리적(公理的) 변화를 우리는 겪고 있다.

여러가지 변화중 당장 우리에게 밀려오고 있는 변화는 이른바 국제화의 물결이다. 정보·통신기술의 획기적 발달과 교통수단의 급속한 발전으로 국경이 허물어지는 지구촌화 현상이 가속화 되고 있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작년에 타결된 우루과이 라운드(UR)협상과 세계 무역기구(WTO) 창설협약, 그리고 곧이어 이루어질 환경보전을 위한 범 세계적 합의로서의 그린라운드 등으로 세계는 적어도 경제영역에서는 하나의 경쟁마당, 하나의 삶의 터로 될 것이 확실하다. 이렇듯 국제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필수적으로 타고 넘어가야 할 물결이다.

국제화시대의 도덕교육의 과제는 주체적이며 창조적으로 국제화를 수용할 줄 아는 인간을 키워나가는 것이다. 그렇지 못하고 국제화를 무

---

비판적으로 수용하다보면 우리는 다양한 경쟁적 문화마당에서 정체성을 잃고 말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현행 도덕교과의 교육과정은 개정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방향을 국제적 안목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국제적 가치를 수용할 줄 아는 인간을 기르는데 두어야 한다.

# 목 차

## < 초 록 >

I. 서 론	4
1. 연구목적	4
2.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6
II. 국제화시대에 따른 도덕교육의 과제	7
1. 국제화시대의 의미	7
2. 21세기 국제사회의 특징	12
3. 국제화의 수용과 도덕교육의 과제	19
III. 현행 국민학교 도덕교육의 실태	25
1. 교육목표상의 실태	25
2. 교육내용상의 실태	29
IV. 국제화시대의 도덕교육의 새 방향	36
1. 방향모색의 이념적 지표 : 21세기적 인간상	37
2. 외국의 국제화 교육	42
3. 교육과정상의 모색	45
V. 결 론	55
참고문헌	57
영문헌록	59

# I. 서 론

## 1. 연구의 목적

사람들이 모여사는 사회에는 도덕과 윤리가 있게 마련이다. 그래서 인간은 윤리적 존재라 하는 것이다. 인간이면 누구나 지켜 나가야 할 보편적 윤리가 있는가 하면 시대변화에 따라 새롭게 요구되는 윤리도 있다. 여기서는 후자의 윤리를 문제 삼으려 한다.

한 사회의 시대적응은 교육에서 시작된다. 사회는 사람들이 만들어 가는 것이며 그 사람을 만드는 작업은 교육이기 때문이다. 시대 흐름에 사회를 맞추어 나가려면 새시대가 요구하는 사람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롭게 요구되는 윤리와 도덕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을 만들어 가야 하며, 그것은 특히 우리 한국사회에서는 도덕교육이 떠맡고 있는 과제이다.

지금 우리는 세기전환적 변혁기에 들어서 있다. 그동안 우리에게 친숙했던 인간에 대한 여러가지 가정들, 그리고 사회기능, 사회작동원리 등이 모두가 급속하게, 그리고 근본적으로 바뀌어가는 공리적(公理的) 변화를 우리는 겪고 있다.<sup>1)</sup>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변화중에서 가장 급속하고 가장 보급효과가 큰 변화는 국제화의 추세라고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변화의 근원은 현대자본주의 사회의 기술발전에서 비롯된 것이다. 정보통신의 발달은 세계의 변화현장이 바로 국내에 전달됨으로써 해외의 기술정보, 문화환

<sup>1)</sup> 이상우(1994) "세계화시대 교육을 통한 창조적 대응" 「교육개발 통권 88호 한국교육 개발연구원

경과 생활모습은 바로 우리국민의 생활과 경제현실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국제화는 인간의 삶의 터전을 국경을 넘는 넓은 영역으로 확대시켜 주고 있다. 일터도 국제화 되고 휴식처도 국제화 되고 있다.

또한, 작년 겨울에 타결된 ‘우루과이 라운드(UR)’ 협상과 세계무역기구 창설협약, 그리고 곧 이어 이루어질 환경보전을 위한 범세계적 합의로서의 ‘그린라운드(GR)’, 나아가서 거론될 기술에 관한 일반협정(TR=technology round) 등으로 세계는 적어도 경제영역에서는 하나의 경쟁마당, 하나의 삶의 터로 될 것이 확실하다.

국경이라고 하는 울타리 속에서 삶을 이어오던 사람들에게 이것은 혁명적 변화이다. 그리고 각각의 법과 제도를 가진 국가의 존재를 상식으로 여겨오던 사람들에게도 이것은 충격적 변화라 아니할 수 없다. 왜냐하면 국제화, 세계화란 국경이 철폐되는 것을 의미함을 물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가치와 준칙을 지킬 것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남의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이것은 바로 우리 모두에게 당장 닥쳐오고 있는 사실들인 셈이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은 이제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수위로 가고 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임무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어떻게 창조적으로 대응하여 새로운 삶의 환경 속에서 보람을 느끼며 살아갈 것인가를 탐구하는 일이다. 이러한 과중한 임무를 교육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새로운 시대환경에 따라 제기될 관행과 가치, 윤리와 도덕이 무엇인지를 탐구하며 그것을 자라나는 새로운 세대에게 교육하는 것, 이런 일들이 바로 우리 교육자 특히 도덕교육자들에게 맡겨져 있는 사명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국제화, 세계화가 되어

가는 시대전환기에 서서 21세기 국제사회의 제반 특징과 여기에서 제기되는 윤리문제가 무엇인지를 고찰하고, 그 결과를 어떻게 적절히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자라나는 세대를 교육해 나갈 것인가를 탐색하여 보고자 한다.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이 논문은 제2장에서 피할수 없는 세계적 보편현상이 되어 가고 있으며, 아울러 우리의 생존·발전전략이 되고 있는 국제화의 의미를 분석하고 그것의 타당성을 이론적으로 검토했다. 또한 국제화의 수용에 따른 도덕교육의 과제를 찾아보았다.

제3장에서는 현행 국민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도덕교육의 국제화 부분을 검토했다. 교육목표와 내용상으로 국제화를 어느 정도 취급하고 있는가를 살펴 보았다.

제4장에서는 국제화시대에 적합한 도덕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코자 했다. 이를 위해 먼저 새로운 방향의 이념적 지표로서의 바람직한 인간상과 국제화시대에 필요한 가치관을 제시해 보았다. 이를 교육과정상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를 기술했다.

제5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했다.

연구는 우선 국제화에 관한 국내에서의 제 논의를 가능한한 분석·정리했으며, 제5차 교육과정에 의거 만들어진 국민학교 도덕 교과서에 취급되어지고 있는 국제화 관련 부분을 요약분석해 보았다.

아울러 내년부터 점차적으로 실시될 제6차 교육과정에 의거한 국민학교의 도덕교육에 관한 자료도 분석하여 연구에 원용하였다.



## II. 국제화시대에 따른 도덕교육의 과제

### 1. 국제화시대의 의미

국제화란 전세계가 그 공간적 물리적인 넓이의 불변에도 불구하고 교통과 정보통신 수단의 비약적 발달로 하여 시간적 거리가 대폭 단축되고 심리적 면적이 자못 좁아져서 이른 바 ‘지구촌(global village)’화 내지 국경없는(borderless) ‘한 생활권화’ 되어가고 있는 현상 그 자체를 말하거나, 또는 삶의 장인 세계의 그런 변화추세에 부응 내지 대응하여 어떤 개인이나 집단의 생활의 내용과 방향을 바꾸어 나가는 모습, 경향 또는 노력등을 일컫는 것이라 할 수 있다.<sup>2)</sup>

그러나 국제화란 의미를 명료화하여 말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국제화가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많은 학자사이에서도 의견 일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이다. 그래서 국제화라는 말이 일상적으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분석하면서 그 의미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sup>3)</sup>

첫째, ‘국제화’는 생활전반에 걸쳐서 국가간의 개방과 교류가 증대되는 것을 뜻한다. 마음만 먹으면 주변의 가게에서 쉽게 수입농산물과 공산품을 살 수 있다. 그리고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누구나 쉽게 외국을 드나들 수도 있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각종 국제회의와 국제학술회의가 빈번하게 열리기도 한다. 국제화라는 말은 이렇게 경제적, 인적, 문

<sup>2)</sup> 송상순(1994) “국제화시대와 가치관 교육”, 제주국제협의회가 주최한 「국제화시대의 제주교육세미나」(94. 6. 24) 발표논문집, P.87

<sup>3)</sup> 이 부분은 김성열(1994) “국제화시대의 제주고등교육”, 제주국제협의회가 주최한 「국제화시대의 제주교육세미나」(94. 6. 26) 발표논문집, P.38~39에 크게 의존했음.

화적 차원등 생활전반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는 외국과의 교류현상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국제화'는 삶의 단위의 확대와 상호의존성의 증대, 문제의 파급 범위의 확대를 가리키는 말이다. 오늘날 사람들은 교통수단 및 정보공학의 급속한 발달의 힘으로 과거에는 몇 달씩 걸려야 갈 수 있었던 곳을 비행기를 타고 몇 시간만에 갈 수 있게 되었을 뿐 아니라 지구의 반대편 사람들과도 자유롭게 전화를 통하여 이야기하고, 마스크를 통하여 신속하게 뉴스를 전해들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우리는 외국과의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으로 영향을 주고 받는 상호의존관계에 놓여 있다. 우리경제는 미국 달러화의 강세 여부나 일본 엔화의 환율의 등락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다. 정치적으로도 마찬가지이다. 백악관은 김영삼 대통령이 러시아나 중국과 관계맺는 방식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청와대는 클린턴의 대북관계발언에 신경을 쓴다. 생활문화적 방식에서도 '세계적 생활스타일'로 변해가고 있다. 압구정동의 청소년들이나 동경 신주꾸거리의 청소년이나 LA의 청소년들의 옷차림에서 보더라도 차이점 보다는 유사점을 더 많이 느끼게 된다. 그 외에도 사람들은 '카푸치노'와 '페리에'를 마시고, 'IKEA' 가구로 아파트를 장식하며 미국과 영국의 록음악을 들으면서 한국의 '현대' 자동차를 몰고 '맥도널드'를 먹으러 가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오늘날에는 특정의 문제가 어느 한 국가에서 발생한다고 할지라도 세계적인 성격을 띄며,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예컨대, 핵문제, 개발과 환경오염문제 등이 그 대표적인 것들이다. 북한의 핵문제가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드는 것은 모든 나라가 그 크기나 힘에 관계없이 핵의 공포에 위협받을 수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환경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자동차의 배기가스와 난방용연료의 사용에 따른 지구의 온난화 현상이나 프레온 가스의 과다사용으로 인한 오존층파괴 등은 전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세째, 국제화가 개방화, 세계화를 지칭하는 개념외에 우리가 도달해야 할 어떤 기준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예컨대, UR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유무역을 주축으로 한 국제무역의 원칙, BR에서 제시할 국제노동기준, GR에서 공인하는 환경기준을 준수하고 지키는 것이 국제화라는 것이다. 경제적 측면에서, 각종의 경제제도와 관행이 선진국의 그것을 닮아가는 것을 국제화라고 한다. 외국의 백화점에 진열된 우리 상품이 외국인들에게 자국의 상품보다 더 구매의 충동을 불러 일으킬 정도로 경쟁력을 갖는 것이 국제화라는 것이다.

정치적인 면에서의 국제화란 선진 외국의 정치제도와 정치관행을 전제로 한다. 국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조언'과 '동의'의 절차, 의사를 발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합법적 기구, 공적 책임을 묻는 절차 등을 마련하고 있는 선진국을 정치적 모델로 삼고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 정치적으로 국제화되는 것이라 한다.

문화적인 면에서의 국제화란 어글리 코리안(Ugly Korean)의 오명을 벗는 것이라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즉 외국에 관광나가서 아직도 호텔 객실에서 음식끓이기, 무임승차, 공항대합실에서 화투놀이, 유적에 이름 새기기, 몸부림치듯 기념사진 찍기 등과 같은 행태를 되풀이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그러한 행태에서 벗어나는 것이 국제화라는 것이다.

우리가 도달해야 할 기준으로서 국제화는 이렇게 경제적인 측면에서, 정치적 측면에서 그리고 생활문화적 측면에서 우리 사회의 제도 규칙 관행 습속 생활양식 등을 합리화하자는 것이다. 우리 사회가 바람직한

상태로 발전해가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합리적인 제도와 규칙등을 받아들이고 익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요컨대, 국제화라는 말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1) 국가간에 일어나는 인적·물적·문화적 개방과 교류를 가리키는 말이다. (2) 국경을 초월하는 삶의 단위의 확대와 경제적·정치적·문화적 상호 의존성의 증대, 문제의 세계성을 가리키는 것이다. (3) 경제적·정치적·생활문화적 측면에서 우리 사회의 제도·규칙·관행·습속·행동양식 속에서 비합리적인 요소를 제거하여 합리화하자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세계화는 국제화보다 한단계 더 나아간 상태를 말한다. 국제화만 하더라도 삶의 포괄단위로서의 주권국가의 존재를 전제로한 국가간 관계의 표준화, 보편화라 할 수 있지만, 세계화란 글자 그대로 전 지구를 하나의 단위로 하는 준칙, 제도, 가치의 보편화를 말한다. 즉 국가의 존재를 넘어서는 개념인 것이다.

사실 돌이켜 보면, 이상과 같은 국제화는 인류의 역사와 그 맥을 같이 해왔다고 볼 수 있다. 역사의 발전과정에서 전기를 가져온 이론, 아이디어, 혁신, 발명 및 제도의 설립 등은 모두가 국제화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을 갖는다. 이런 점에서 보면, 국제화란 인류의 욕구나 복지를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다.’

국경이나 민족이라는 개념이 탄생하면서 민족 또는 자국우선주의가 확산되기 시작했고, 이는 또 배타적 의미를 갖게 됨으로써 국가나 민족간 이해충돌과 갈등을 빚게 되었다. 예컨대, 일찍이 국가를 형성한 유럽제국간 이해·대립과 충돌은 결국 양차대전을 가져왔고 그 결과 모두가 피해를 본다는 교훈을 실제로 터득하였다. 국가간의 통합노력은 이

‘ 김세원(1994), “국제화의 조건” 『자유공론』 (94년 3월호) P.35

러한 교훈이 축적되면서 본격화되었던 것이다. 2차대전 이후에 만들어진 EEC(유럽경제 공동체, 1958)라든지, ECSC(유럽석탄철강 공동체, 1952), ENEC(유럽핵에너지공동체, 1958)등은 그 구체적인 사례들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례들은 모두 국가우선주의나 민족주의가 가져올 수 있는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유럽통합의 과정에서 탄생한 것으로, 국제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좀 더 엄격한 의미에서는 ‘지역(주의)화’라 부를 수 있는데, 그것은 특정지역내 국가들 간에 지역내 거래를 완전자유화하는 형태 이상의 경제통합이다.

이러한 지역주의화와는 대비적인 측면에서 볼 수 있는 국제화 노력이 GATT를 통한 다변주의적 국제거래의 자유화이다. 즉 이는 GATT 회원국들 간 협상을 통하여 국제거래의 자유화를 시도하고 그 결과를 무차별 원칙에 입각하여 동일하게 적용하려는 것이다. 이 GATT회원국들은 1947년 이래 이번의 우루과이라운드(UR)를 포함하여 모두 8차례에 걸친 국제무역협상을 진행하여 왔다. 그리하여 국가간의 무역장벽을 모두 제거하고 예외없는 국제거래의 완전 자유화를 실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의 우루과이라운드협상 타결은 우리나라에도 큰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거니와, 국제화라는 용어가 현실감있게 다가온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높아지는 교육시장 개방의 파고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우리 국민의 교육열은 현재까지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었으며 교육산업이 번창할 수 있는 호조건이 되어 왔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제 1996년 OPEC(유엔경제협력 개발기구)에 우리나라가 가입할 경우 이 기구의 개방이 통상 자유화 원칙에 따라 1995년 부터 학원 개방이 실시되고 96년부터는 대학

개방까지 이루어질 전망이어서 이러한 교육시장의 개방은 국제화 사회에서 국민의 정신창고를 내어주는 중대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와같이, 국제화란 경제적 측면에서의 국제거래의 자유화 이상인 것이다. 경제질서를 축으로 하되, 거기에는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가치, 법, 제도, 관행 등을 포함하는, 즉 우리의 삶의 양식을 규정하는 넓은 의미의 새로운 질서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국제화의 대응의 문제는 별도로 다시 검토의 대상일 것이지만, 도덕교육을 운위하는 연구자의 관심은 포괄적인 의미에서 국제화가 가져올 새 질서가 무엇인지를 가늠해보고 그에 대한 대처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일수 밖에 없다.

## 2. 21세기 국제사회의 특징

그렇다면 범세계적인 국제화·세계화의 흐름이 가져올 새로운 질서의 특성들은 어떤 것일까? 이미 시사된 바와 같이, 상식적인 수준에서 우선적으로 짐작해 볼 수 있는 하나는 보편성이다. 온 세계가 다 인정하는 준칙, 가치, 관행, 생활양식이 생겨난다. 우리의 법과 다르다고 거부할 수 없는 공통의 규칙이 있고 우리의 가치와 다르다고 무시할 수 없는 보편가치가 우리에게 강요되게 된다.

여기서 그 보편적인 가치가 무엇인가하는 것을 좀 더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서만 알 수 있을 것이다. 즉,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다가오는 새 시대에 있어서 국제사회의 특징적 요소들이 무엇인가를 먼저 가늠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사회를 규정하는 특징적 요소들은 대체로 첫째, 경제적 실리를 바탕으로 하는 사회, 둘째, 기술·정보

화 사회, 셋째, 환경에 대한 관심 고조, 넷째, 민주화 사회, 다섯째, 다  
변·다원화 사회등이 아닌가 생각된다.

① 경제적 실리를 바탕으로 하는 사회

국제화·세계화의 물결 자체가 그 중심축은 경제문제에 있음을 지적  
하였다. 국가간 경제적 이해다툼에서 비롯되는 갈등을 해소하려는 취지  
에서 국가통합이 시작되었던 것이며, 무역장벽을 철폐하고 예외없는 국  
제거래의 자유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 국제화의 근본 목적인 것이  
라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21세기를 기다릴 필요도 없이 이미 국제사회는 경제력을 바탕으로  
하는 질서가 수립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 이상 이념이나 군사력에 의한  
헤게모니 장악은 의미가 없다. 사회주의의 붕괴 이후에 세계경제는 좋  
든 싫든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기본축으로 하는 자율경쟁시대로 돌입  
하고 있으며, 경제력에 의한 국제사회에서의 헤게모니 쟁탈전이 벌어지  
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제화는 한편으로 지역(주의)  
화로, 다른 한편으로는 예외없는 국제거래 자유화·세계화로 가고 있거  
니와, 여기서 국제화란 바로 그 게임의 규칙을 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제질서가 의미하는 새 질서란 한마디로 자율질서이다. 폭력  
으로 한나라가 다른나라에 특정 가치와 제도를 강요하지도 않을 것이  
고 또한 할 수도 없을 것이다. 스스로 참여하는 나라는 남과 함께 살아  
가고 그렇지 못하는 나라는 뒤쳐질 것이다. 주어진 규칙에 따라 무한경  
쟁을 하게 되는 셈이다.

## ② 기술·정보화 사회

다가오는 미래사회가 기술·정보화사회가 될 것이라는 데 세계 석학들의 의견은 예외가 없다. 예컨대, 존 네이스비트(John Naisbitt)는 그의 저서 『巨大한 흐름』에서 현대인의 생활을 변혁시켜 주고 있는 10가지의 거대한 흐름을 기술하면서 산업사회의 시대로부터 정보화사회 시대로의 변화만큼 충격적인 변화는 일찍이 없었다고 지적하고 있다.<sup>5)</sup> 사회학자인 다니엘 벨(D.Bell)은 그것을 “탈산업사회”라 불렀고, 그의 저서인 『정보사회의 사회적 구조』에서 정보화사회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즉, ㉠ 서비스경제의 창출, ㉡ 전문적 기술적인 계층의 우월, ㉢ 사회혁신과 정책형성의 원천으로서 이론적 지식의 중심적 역할, ㉣ 자립적인 기술성장의 가능성, ㉤ 새로운 지식기술의 창출 등이다.<sup>6)</sup>

이러한 기술·정보화사회가 가져올 새로운 변화는 특히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관련된다.<sup>7)</sup> 먼저, 지금까지의 1차산업으로부터 2차, 3차산업으로의 비중이 더욱 진행될 것이며, 이에 따라 취업구조도 확연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또한 산업구조의 소프트화가 실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소프트화를 통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지식집약형 산업, 서비스업의 증가는 물론, 재료에 대한 소프트화(의료의 패션화 등), 동일산업 내에서 소프트 관계의 매상의 증가(컴퓨터 산업의 소프트매상)등 다양한

<sup>5)</sup> John Naisbitt(1982), Megatrend: The New Directions Transforming Our Lives (New York: Warner Communication Company) 朴在斗 譯, (1985) 「脫産業社會의 새 潮流」 法文社 PP11~38

<sup>6)</sup> Daniel Bell(1979), The Social Framework of Information Society Massachusetts: The MIT Press, 이동만 옮김(1984), 「정보화 사회의 사회적 구조」 PP6~8

<sup>7)</sup> 한국교육개발원(1987), 「미래사회를 지향한 교육발전방안」 PP21~24



산업의 발전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고도산업사회에서는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하고 급격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가정에서는 컴퓨터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정보의 활용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기업에서도 사무 및 생산공정의 자동화, 경영에 필요한 각종 다양한 정보가 전산화되어 처리되고 공공 서비스 분야에서도 컴퓨터를 이용한 정보체제가 도입되며, 심지어 기업에 관련된 모든 일을 가정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미 이러한 변화는 우리 사회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 ③ 환경에 대한 관심고조

18세기 산업혁명 이후 인류는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면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삶을 구가하기 시작했다. 과학기술을 이용하면서 자연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자연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게 되었다. 과학기술문명이 인간의 삶의 양식을 크게 바꾸어 놓은 것이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삶을 끊임없이 발전시키고 풍요하게 하리라는 믿음은 하나의 神話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물과 공기와 산업화의 부산물에 의해 오염되기 시작했고 지구 곳곳에는 인간이 쓰다 버리거나 산업체에서 나온 폐기물들이 쌓여만 간다. 지구의 생태계를 보호하고 있던 오존층이 파괴되고 지구는 날로 더워져가고 있으며 오랫동안 지구위에서 생명을 부지해오던 일부 생명체들이 멸종위기를 맞고 있다는 보고가 잇따르고 있다. 만일 이러한 속도로 지구의 황폐화가 계속된다면 그 속에서 삶을 유지하고 있는 인간들도 결국에는 멸종의 순간을 맞을 수 밖에 없다. 학자들에 따라 계산한 위기의 시간대가 조금씩 다를 뿐 인간들에 의한 환경오염은 결국 지구공멸을 자초

하게 될 것이다. 다가오는 미래사회가 경제사회요, 기술·정보사회라 했지만, 미래사회의 발전을 가장 위협하는 걸림들이면서 해결해 나가야 할 숙제가 바로 환경오염의 문제이다.

지난해 6월, 브라질의 리오데자네이로에서는 70여개국의 국가정상을 포함한 170여개국 정부대표와 환경전문가, 민간 환경단체회원 2만 여명이 참석한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가 개최되었다. 이 ‘리오’ 환경정상회담 역시 남북간의 이해가 엇갈리고 구체적인 성과는 없이 총론적인 합의에 그치고 말았지만, 지구의 환경문제에 대해 전 세계의 관심을 촉발시킨 이번 회담을 통해 이제 환경문제는 더이상 어느 한 국가의 특정문제가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국가가 함께 대처해야 할 당면문제로 부각되었다.<sup>6)</sup>

#### ④ 민주화사회

구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체제 붕괴이후 세계 각국에서는 이른바 ‘민주화’가 일반적인 경향이 되었다. 그렇다고 그것이 ‘자유민주체제’의 승리라고는 말할 수 없다. 여기서 ‘민주화’는 나라마다 수준이 다르고 그 의미하는 바 마저 다르기 때문이다. 더욱이 다가오는 경제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는 나라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회주의체제가 당분간 여전히 유혹으로 남을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민주화’가 미래사회의 큰 흐름이 될 것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여기서 ‘민주화’는 ‘참여’와 ‘복지’이념의 구현이라는 측면에서 이해된다. 먼저 ‘참여’는 ‘포괄성’과 ‘다원성’이라는 측면에서 이해되는 바, 참여의 포괄성이란 특

<sup>6)</sup> 방영준(1993), “환경윤리”, 안귀덕·도성달 외 공저, 「현대 한국사회의 윤리문제와 교육」 한국정신문화연구원, PP150~152

정한 개인이나 집단도 참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그리고 참여의 다원성이란 사회의 다원화 현실을 기초로 한 공존의 원칙을 말하는 것으로, 사상·이념·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잡다한 사회적 요소의 공존을 용인하는 것이다. 이러한 참여의 포괄성과 다원성은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통용될 것이다. 어느 특정 국가나 민족도 국제사회의 구성원에서 배제될 수 없으며, 어느나라도 특정 이념이나 가치를 특정 국가에서 강요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인정하면서 평화의 공존을 이루어 나가게 될 것이다. 이러한 참여의 포괄성과 다원성 원칙이 구현될 것이라는 예측은 다음에 살펴볼 미래의 국제사회가 다변·다원화사회라는 점에서 가능하다.

다음으로 ‘복지’의 이념은 경제력의 사회적 민주화로 이해되는 바, 그것은 단순히 물질적 분배의 공정성을 의미하는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삶의 질의 복지화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산업사회가 인류에게 경제적 물량면에서 욕구충족을 만족시켜 주었다면, 다가올 후기산업사회에서의 새로운 욕구는 삶의 질의 문제이다. 이미 세계는 자국 국민의 고도복지 증진을 위해 무한 경쟁에 몰입하고 있는 상태이고, 이러한 복지문제가 자국 이기주의에 머무른다면 경쟁의 규칙은 깨어질 것이고 따라서 지구의 평화와 전 인류의 삶의 질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이다.

##### ⑤ 다변·다원화 사회

유명한 미래학자인 앨빈 토플러(Alvin Toffler)는 『미래의 충격』(1970), 『제3의 물결』(1980)을 통하여 미래사회를 전망하였다. 그는 『제3의 물결』에서 미래사회를 ① 脫規格化, ② 脫專門化, ③ 脫同時化,

④ 脫極大化, ⑤ 脫集中化, ⑥ 脫集權化 등의 6가지로 특징화하였다.<sup>9)</sup> 이러한 그의 전망은 다가올 정보화사회와 관련되어진다. 산업사회가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에 초점을 맞춘 구조때문에 상품 규격화와 가치의 획일화를 가져다 주었다면, 정보화사회는 탈물질문명적인 가치관의 탈 획일화, 특히 선택적인 소비지출의 증가와 자유시간의 선호, 기호의 다원화, 삶의 질에 대한 관심증대를 초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같은 탈획일화와 기호의 다양화는 이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세분화된 생산구조와 탈중앙집권적이고 분권적인 사회구조를 낳게 될 것이다. 이러한 양상을 포스트모던니즘은 단일성의 진리추구보다는 불확정성의 다양성, 즉시성, 해체성, 상대성, 수평적 다감각성 등이 강조된 새로운 사회문화논리라고 특징화하고 있다.<sup>10)</sup>

이같은 변화의 시대에는 어떤 명백한 도덕적, 정신적 가치관이나 규범을 주장하기가 어려울 뿐더러 그러한 가치관이나 규범의 당위성을 주장할 인식론적 근거를 찾는 일 또한 쉽지 않게 된다. 다만 Aoki 등이 지적하듯, 인류가 서로에게 속함을 인식하는 공존의 윤리성, 또는 가치관의 상대성과 무정부적 혼란을 극복하는 실존적 선택의 윤리성 등이 모색될 수 있을 뿐이다.<sup>11)</sup>

한편, 이러한 틀 중심화의 논리는 국제적으로는 다변화로 파악될 수 있다. 어느 특정 국가도 단일 헤게모니를 획득할 수 없다. 이미 이념이나 군사력에 의한 헤게모니 장악의 시대는 지나갔다. 그렇다고 경제력

<sup>9)</sup> Alvin Toffler(1980), The Third Wave(New York:William Morrow Company Inc)

<sup>10)</sup> 휴 실버만 엮음, 윤호병 옮김(1992), 「포스트모던니즘」 PP11~21.

<sup>11)</sup>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93), 「삶의 질과 교육」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육윤리연구실 학술세미나(93. 11. 4)자료, 이 중 유혜령의 논평원고, P.41

에 의한 일국 해계모니 장악도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그것은 한편으로 지역화·블럭화의 양상을 보이든지 아니면 무한경쟁과 제한없는 거래의 세계화의 양상을 보이든지 할 뿐이다. 어쩌든 경제의 측면에서의 국경개념은 점점 무의미해져 가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음은 분명하다. 나아가 이는 경제적 물량거래의 국경철폐 이상으로 가치와 준칙, 제도와 이념 등의 국경철폐를 가져올 것이다. 그러나 앞서 밝힌 대로 특정가치를 특정국가에 강요할 수는 없을 것이다. 즉, 미래사회의 새질서는 세계 인류의 공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 이외에는 모든 가치, 제도, 믿음, 삶의 양식이 허용되는 질서가 될 것이며 이에 따라 다양한 전통을 가진 다양한 문화가 함께 펼쳐질 것이다. 그리하여 다른 문화를 흡수 소화하여 자기문화를 세계화하는 나라도 있을 것이며, 자기문화의 정체성을 영원히 잃어 버리게 되는 민족도 있을 것이다. 결국 미래사회에서는 다양한 가치와 이념들이 다함께 공존의 윤리성을 찾아가야 할 것이다.



### 3. 국제화의 수용과 도덕교육의 과제

국제화·세계화란 한마디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가치나 준칙을 지킬 것을 요구하는 것을 말하거니와, 이러한 시대적 흐름은 이제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수위로 가고 있다. 이처럼 국제화·세계화의 흐름이 거역될 수 없는 것이라면, 우리는 오히려 ‘創造的 受容’의 슬기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창조적 수용’이란 단순히 국제사회의 가치나 문화를 단순히 ‘피동적으로 받아들려짐’과는 거리가 멀다. 이를 단순히 ‘피동적으로

받아들여짐'에만 국한될 경우 우리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민족이 되고 말지도 모를 일이다. 여기서 먼저 '수용' 혹은 '받아들임'과 '받아들여짐' 사이에는 개념적으로 큰 차이를 내포하고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예컨대, 내가 손님을 마중하는 행위는 그를 받아들이는 일과 같다. 손님을 잘 받아들이는 행위는 주인 스스로의 생각에 어떤 능동적 '예비규정'을 전제로 해서 가능하다. 나는 손님을 잘 청소된 안방이나 응접실 또는 여름철에 정원에서 맞이하지 아무런 예비규정이 없이 들판이나 쓸쓸한 곳에서 수용하지 않는다. 내가 스스로 예비규정을 준비하지 않고 불시에 손님의 내방을 받으면 그것은 엄밀한 뜻에서 손님을 받아들임(receiving)이 아니고 손님에 의하여 내방당함(undergoing)이 된다. 이처럼 외래문화를 수용하든 또는 손님을 맞이하든 모든 수용은 결코 피동이 아니고 어떤 주체적 능동성에 입각한 예비규정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여겨진다.<sup>12)</sup>

다음으로 '창조적 수용'이라 했을 때, '창조성'의 논리는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는 '나무접붙이기'에 비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예컨대, 우리가 보다 품질이 좋은 단감을 얻으려는 목적에서 돌감나무와 단감나무를 접목시킨다고 하자. 이때 대목은 어떤 나무이어야 하고 가지는 또 어떤 것이어야 하겠는가? 당연히 대목은 돌감나무이어야 하고 가지는 단감나무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 때 얻게되는 감은 어떤 것인가? 물론 외형이나 맛이 모두 단감이다. 그러나 사실 얻어진 단감의 맛은 이전의 맛에 알파가 더해진 품질이 향상된 것임은 말할 것도 없다. 이것이 바로 외래문화를 수용하는 자세이고 문화창조의 논리가 아니고 무엇인가?

<sup>12)</sup> 김형효(1985), 「한국정신사의 현재적 인식」, 고려원 247쪽

만약 단감을 얻으려 돌감나무와 접붙이지 말고 단순히 단감나무만 들여왔다고 해 보자. 이 때 단감을 얻기는 커녕 생리에 맞지 않은 단감 나무는 말라 죽든지 단감이 열린다 하더라도 품질은 더 형편없이 떨어질 것이 명약관화하다. 이를 외래문화의 수용이라는 각도에서 본다면 외래의 표피문화만 들여오고 내용과 본질이 빠져버린 꼴이 되는 것이다. 또 단감나무를 대목으로 하고 돌감나무를 가지로 한다고 하면 어떨까? 이 때도 마찬가지로 얻으려는 돌감은 열리기도 전에 나무가 말라 죽든지 더 형편없는 돌감이 열려 먹을 수조차 없을 것이다. 특히 해방 후 우리는 전래의 대목은 무시한 채 가지만을 들여오든지 아니면 가지와 대목을 뒤 바뀐 것은 아닌가?<sup>33)</sup>

여기서 우리가 주의하여 볼 것은 ‘생리’라는 용어이다. 우리의 ‘생리’와 ‘결’에 맞지 않은 외래문화를 단순히 받아들인다든지 우리의 생리에 맞도록 가공하지 않고 외래문화를 받아들일 경우 우리는 다가오는 국제화·세계화 속에서 다시 한번 허우적대는 무주체성의 민족이 되고 말 것이 뻔하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대목에 해당하는 ‘우리 것’에 대한 철저한 자기성찰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러한 바탕위에서 국제화의 흐름이 맞닿을 때 비로소 창조는 이루어질 수 있다. 이 때 ‘우리 것’의 국제화·세계화도 모색된다. 우리의 도덕교육의 과제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도덕교육의 과제는 ‘창조적 수용을 할 줄 아는 지혜’를 길러주는데

<sup>33)</sup> 이를테면, 우리가 그동안 ‘민주주의’를 얻기 위해서라면 대목에 해당하는 ‘민본주의’를 바탕으로 하여 ‘민주주의’를 접목시켜야 하는데, 대목을 무시하든지 아니면 대목과 가지를 뒤바꿔서 해온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민주주의’는 지난 시절에 강요당했던 소위 ‘한국적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있다. 위와 같은 관점에 서서 국제화의 흐름에 대한 시대감각을 키워주어야 하며 진취적 기상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국제사회의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가치의 본질이 무엇인가하는 점도 일깨워 주어야 한다. 특히 다가오는 국제사회에서 요구되는 윤리적 덕목들도 교과서에 반영하여 미리 신념화 할 수 있도록 교육되어야 한다.

다가오는 국제사회는 무한경쟁이 벌어지는 자율질서의 시대라고 하였다. 국제적 게임의 규칙을 어기지 않으면서 진취적으로 나아가려는 호연지기의 기상이 무엇보다도 요구된다. 또 미래사회는 고도의 산업화 시대요 정보화의 시대이다. 산업구조의 소프트화가 주요 안건이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는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할 수 있는 창의력이 요청된다. 창의력을 구성하는 요소로는 경험에 대한 개방성과 독창적인 구상력, 자신의 평가에 확신과 만족감을 갖는 것, 문제에 직면하여 부딪쳐 보는 일과 혼돈이나 모순을 해결하는 일에 대한 만족, 자기가 업적을 쌓아야 한다는 의무감과 책임의식, 지능과 정력 그리고 이 세상은 다소 위협적이며 이것을 극복하려면 끊임없이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의식 등을 들 수 있다.<sup>14)</sup> 특히 앞으로 이러한 창의력 신장을 위한 교육이 절대적으로 요청된다. 그러나 정보화사회가 줄 도덕적 무력감도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모든 생활이 자동화되고 기계화되면서 일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시킬 수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동화, 기계화됨에 따라 인간을 기계의 자동적 진행에 매달리면서 자기노동에 대한 자율적 의사결정 영역이 극히 축소되는 데서 오는 무권력성과 무의미성, 지루함, 이념적 가치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비인간화와 인간소외를 극복하기 위한 이론체계로서 과학기술

<sup>14)</sup> 한국교육개발원(1987), 「미래산업사회를 지향한 교육발전방안」 P.23



이 이념화 작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sup>15)</sup> 한편 정보화사회와 관련하여 또 요구되는 하나의 덕목은 ‘신뢰’이다. 정보의 유통은 어디까지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직업윤리가 정착되어야 한다.<sup>16)</sup> 이러한 신뢰의 직업윤리는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특히 국제사회에서 중요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국제사회의 게임의 규칙을 어기는 꼴이 되어 국제적 망신을 받는 꼴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구 생태계의 보존이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로 인식되고 있고, 이러한 인식은 다가오는 21세기에서 더욱 심각성있는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확인시키는 일과 아울러 개인의 행동 하나하나가 지구를 되살려 후손들에게 좋은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다는 신념을 갖도록 하는 일이 매우 중차대한 과제이다. 어쩌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안은 지금까지의 이성적이고 기계적인 자연관, 인간관에서 벗어나 탈인간중심적 윤리관을 갖도록 하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된다. 이러한 근본적 사고의 전환은 서양에서보다 오히려 동양적 전통에서 찾아볼 수 있을지 모른다.

한편, 다가오는 미래사회는 ‘민주화’가 보편화되는 사회이고, ‘다원화’ 사회이다. 어느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배제될 수 없으며 이념이나 이해관계가 다르다고 강제할 수 없다. 탈중심화, 다원화된 모든 잡다한 이념과 가치, 제도, 집단 등이 서로의 이해관계를 인정하는 바탕위에서 공존의 윤리를 모색해 나가야 하는 시대이다. 이러한 모습들은 어쩌면 전통적으로 누려왔던 윤리학의 권위를 하락시킬지도 모를 만큼 심각하

<sup>15)</sup> 상계서 Ibid

<sup>16)</sup> 박동준(1994), “직업윤리의 방향설정에 관한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의 교육과 윤리」 제3집, PP275~278

다. 도덕적 평가의 기준이 없어진다고 볼 수 있는 것이 포스트모던적 가치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닥칠 도덕교육의 과제중에 가장 심각한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

그리고 어느 국가이든 간에 오늘의 청소년들이 21세기 초반에 완전한 국제화·세계화시대의 흐름속에서 이 지구촌의 주역이 되는 것은 두 말할 여지가 없다. 이들에게 아무런 준비없이 그 시대를 맞이하고 살아가게 하는 것은 교육의 직무유기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인이 인적, 물질, 지적으로 21세기의 세계의 주역들과 궤도를 같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민이란 제한된 관념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국제인 또는 세계인으로서 자연스레 부상하도록 교육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또한 도덕 교육의 중요한 과제로서 상술한 세계 공존의 윤리를 수용하고 민족의 정체성 및 개인적 기존 가치와 접목을 시켜가는 과정에서 야기되는 다양한 갈등들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줌으로서 해결이 가능하리라 본다. 여기서 자연스런 세계인이란 성인이 된 이후에 갑자기 길러지거나 마음만 먹으면 곧 그런 세계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사람의 습관, 태도, 성격 등 인간의 기본적인 성격 내지 정신적 골격은 4세에서 14세까지 거의 100% 완성된다고 교육학자들은 다양한 연구논고에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유치원이나 국민학교 아동들에게 해당되는 성격 형성기간에 국제 이해 교육 및 세계인이 되는 경험을 하도록 교육되어야 하고 특히 이러한 교육활동은 도덕과 교육이 중핵적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Ⅲ. 현행 국민학교 도덕교육의 실태

이상에서는 국제화·세계화에 따른 도덕교육의 과제가 대략 어떤 것들인가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이 장에서는 앞에서의 고찰을 염두에 두면서 현행 초등 도덕교육의 실태를 검토하고자 한다. 먼저 전제해 두어야 할 것은, 현행 도덕교육의 문제점을 파헤치고 비판을 하는데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시대변화에 따라 앞서 준비하며 새시대에 맞는 인간을 길러내는데 교육의 또다른 목적이 있음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보완점을 도출하려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 1. 교육목표상의 실태

현재 초등 도덕교과는 5개의 생활영역으로 구분하고 있다.<sup>17)</sup> 즉, 개인생활, 가정·이웃생활, 시민생활, 국가생활, 통일·안보생활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5개의 생활영역의 구분은 편의상 구분한 것으로, 우리의 도덕생활을 논리적 혹은 개념적으로 구분한 것일 뿐이라고 하고 있다.<sup>18)</sup>

현행 초등 도덕교육의 교과목표 및 학년목표들은 이처럼 편의상 나누어진 5개 영역을 따라 각각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먼저 도덕과의 교과 목표를 보기로 하면 다음과 같다.<sup>19)</sup>

일상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예절과 도덕규범의 의미를 이해하고,

<sup>17)</sup> 현재 국민학교에서의 도덕교육은 1·2학년까지는 통합교과서로서 「바른생활」에서, 3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독립교과로 「도덕」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서는 후자의 「도덕」교과서만을 검토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sup>18)</sup> 교육부(1993), 「도덕 6-2:국민학교 교사용 지도서」 P.13

<sup>19)</sup> 상계서 P.13

이를 실천하게 하여 자율적인 도덕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 1) 자신의 발전에 필요한 규범의 의미를 이해하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자율적인 인격 형성의 바탕을 기르게 한다.
- 2) 가족과 친지 및 이웃과 더불어 생활하는 데 필요한 규범의 의미를 이해하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초를 다지게 한다.
- 3) 민주 시민으로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규범의 의미를 이해하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바람직한 민주 시민의 태도를 가지게 한다.
- 4) 국가와 개인과의 관계를 이해하여, 국민으로서의 긍지와 애국심을 가지고 나라와 겨레의 발전에 참여하며,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려는 태도를 가지게 한다.
- 5) 국토 분단의 현실과 북한 공산 집단의 실상을 바르게 이해하며 대한 민국의 정통성 및 우월성을 알아,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신념과 태도를 가지게 한다.

다음으로 각 학년별 목표를 보기로 하면 다음과 같다.<sup>20)</sup>

<3학년 목표>

- 가) 자신의 안전과 발전에 기본이 되는 행동 규칙과 생활 태도의 중요성을 알고, 이를 습관화하게 한다.
- 나) 가정과 이웃의 일원으로서 생활하는데 기본이 되는 규범의 필요성을 알고, 이를 습관화하게 한다.

<sup>20)</sup> 상계서 PP13~15

- 다) 민주 시민 생활의 기본이 되는 공중도덕과 사회적 규범의 필요성을 알고, 이를 습관화하게 한다.
- 라) 국토 애호와 국가 발전의 의미를 알고, 국민으로서의 긍지와 애국심을 가지게 한다.
- 마) 북한 주민의 생활상을 우리와 비교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우월성을 인식하여, 민주적 평화통일의 필요성을 깨닫게 한다.

<4학년 목표>

- 가) 자신의 발전에 필요한 기본적인 규범의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하고, 이를 실천하게 한다.
- 나) 가정과 이웃의 일원으로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규범의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하고, 이를 실천하게 한다.
- 다) 민주 시민 생활의 기본이 되는 공중 도덕과 사회적 규범의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하고, 이를 실천하게 한다.
- 라) 나라를 빛내는 일의 참 뜻을 알고, 민족 문화에 대한 긍지와 애국심을 가지게 한다.
- 마) 북한 사회의 실상을 통해 북한 공산 집단의 문제점과 대한 민국의 우월성을 인식하여, 민주적 평화 통일의 필요성을 깨닫게 한다.

<5학년 목표>

- 가) 자신의 발전에 필요한 여러 규범간의 관련성을 이해하고, 이를 구체적 사태에 적용하는 능력을 가지게 한다.
- 나) 가정과 이웃의 일원으로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여러 규범간의 관련성을 이해하고, 이를 실생활에 적용하는 능력을 가지게 한다.

- 다) 민주 시민 생활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규범간의 관련성을 이해하고, 이를 실생활에 적용하는 능력을 가지게 한다.
- 라) 국가와 개인의 관계 및 국가간의 문화 교류의 필요성을 바로 알아, 바람직한 국민의 자세를 확립하고,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려는 태도를 가지게 한다.
- 마) 남북 분단의 문제점과 국가 안보의 중요성을 알고, 대한 민국의 우월성을 인식하여, 민주적 평화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게 한다.

<6학년 목표>

- 가) 자신의 행동과 태도를 반성함으로써 자율적인 인격 형성의 기초를 다지게 한다.
- 나) 가정과 이웃의 일원으로서 타인에 대한 자신의 행동과 태도를 반성함으로써 바람직한 인간 관계의 기초를 다지게 한다.
- 다) 민주 시민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사회적 행동과 태도를 반성함으로써 바람직한 민주 시민의 자질을 갖추게 한다.
- 라) 자유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나라와 겨레의 발전에 협력하며,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려는 태도를 가지게 한다.
- 마) 북한 공산 체제의 문제점과 대한 민국의 우월성을 인식하여, 자주 국방의 의식을 높이고 민주적 평화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게 한다.

이상의 교과목표 및 학년목표에서 보듯이, 국제화와 관련한 교육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부분은 국가생활 영역에서이다. 그것도 저학년인 3·4학년에서는 제시되어 있지 않고 고학년인 5·6학년에서만 제시되고 있

다. 물론 저학년에서 국제화와 관련한 교육목표가 설정되지 않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 바는 아니다. 앞에서 우리가 제시한 문화창조의 논리에 따르면 저학년에서의 교육목표는 고학년에서의 목표와 연계시키는 차원에서 고려된 '대목'에 대한 자기성찰이라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위의 교과 목표에서 보듯이 저학년의 교육목표는 '민족 문화에 대한 긍지와 애국심'을 가지게 하는데 두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 항에서 살펴볼겠지만, 이러한 점에서 현행 도덕교과에서 제시되고 있는 덕목과 내용들이 대부분 우리의 전통 문화에 바탕을 둔 덕목과 내용으로 꾸며지고 있는 점은 매우 주목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국제화와 관련해서 제시되고 있는 목표는 너무 추상적이고 단편적이다. 우리에게 국제화·세계화의 물결은 이제 더 이상 '강 건너 불'이 아니라 '발등의 불'로 다가서고 있다. 다가오는 미래사회는 지금까지의 인간관 내지 윤리관에 대한 근본적인 사고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현행 도덕교육의 교육목표는 시대변혁에 맞추어 보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다음의 교과 내용을 검토해 보면 더욱 그러하다.

## 2. 교육내용상의 실태

각 학년별 교육내용을 살펴보기로 하면 다음과 같다.<sup>41)</sup> 각 소단원 끝의 괄호속은 가르치고자 하는 덕목이거나 주요 지도 요소를 의미한다.

---

<sup>41)</sup> 상계서 PP16~18

<3학년>

가) 개인생활

- (1) 안전한 행동(명랑)
- (2) 정직한 태도(성실)
- (3)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기(자주)
- (4) 자기의 잘못에 대한 반성(사려)
- (5) 물건을 소중히 다루고 아껴 쓰는 생활(절제)

나) 가정·이웃 생활

- (1) 바른 인사와 언행(예절)
- (2) 부모님의 사랑, 자녀의 효도(가정애)
- (3) 친구의 잘못을 용서할 줄 아는 마음(관용)
- (4) 고마움에 대해 감사할 줄 아는 마음(경애)
- (5) 우리 학급에서 일어난 흐뭇한 일과 반성할 일(애교)

다) 시민 생활

- (1) 다른 사람과의 약속 이행(신의)
- (2) 사람들의 서로 다른 점에 대한 이해와 중요성(타인존중)
- (3) 힘든 일 함께하기(협동)
- (4) 공공 시설 아끼기(공익)
- (5) 공정한 행동(정의)

라) 국가 생활

- (1) 국토를 사랑하는 마음(국가애)
- (2) 나라를 강하게 하는 길(국가 발전 협력)
- (3) 나라를 위해 애쓴 조상들(민족애)

마) 통일·안보 생활



- (1) 함께 살아가야 할 우리 민족(남북 분단 인식)
- (2) 우리 어린이들의 생활과 북한 어린이들의 생활(북한 현실 비판)
- (3) 6·25남침과 그 이후의 도발 사례(국방·안보)

<4학년>

가) 개인 생활

- (1) 건강한 신체와 건전한 마음가짐(명랑)
- (2) 부지런한 생활(성실)
- (3) 자연을 가꾸고 아끼는 마음(생명존중)
- (4) 옳은 일을 앞장서서 하기(자주)
- (5) 시간을 잘 지키고 아껴 쓰는 생활(절제)

나) 가정·이웃 생활

- (1) 여러 가지 경우의 예절(예절)
- (2) 가족을 존중하고 아껴주는 마음(가정애)
- (3) 친구를 아끼고 믿는 마음(관용)
- (4) 다른 사람의 처지가 되어 생각해 보기(경애)
- (5) 우리 학교의 자랑과 학교에 대한 긍지(애교)

다) 시민 생활

- (1) 자유와 책임(준법)
- (2) 약한 사람 차별하지 않기(타인 존중)
- (3) 건전한 경쟁과 협동(협동)
- (4) 공동 도덕 지키기(공익)
- (5) 정의감과 용기(정의)

라) 국가 생활

- (1) 나라를 빛내는 길(국가애)
- (2) 노력해서 이룬 우리 나라의 발전(국가발전 협력)
- (3) 민족의 문화 유산 애호(민족애)

마) 통일·안보 생활

- (1) 우리의 생활과 북한 주민의 생활(북한 현실 비판)
- (2) 나라를 지키기 위해 애쓴 사람들(국방·안보)
- (3) 통일을 해야 하는 까닭(통일)

<5학년>

가) 개인 생활

- (1) 땀 흘려 일하는 보람(성실)
- (2) 인간 생명의 귀중함(생명존중)
- (3) 창의와 모방(자주)
- (4) 분별 있는 행동(사려)
- (5) 몰라서 못하는 사람과 알고도 안 하는 사람(실천의지)

나) 가정·이웃 생활

- (1) 조상들의 예절 생활에서 본받을 점(예절)
- (2) 화목한 가정 생활(가정애)
- (3) 친절할 마음(관용)
- (4) 어려운 처지의 사람을 도와 주기(경애)
- (5) 우리 고장에서 일어난 흐뭇한 일(애향)

다) 시민 생활

- (1) 서로 신뢰하는 사회(신의)
- (2) 다른 사람의 이익 존중(타인존중)

- (3) 시민 사회에서의 협동(협동)
- (4) 자유와 질서의 의미(공익)
- (5) 민주 사회에서의 평등(정의)

라) 국가 생활

- (1) 국가와 개인과의 관계(국가애)
- (2) 경제생활의 윤리(국가발전 협력)
- (3) 외국에 사는 우리 동포들의 모습과 그들의 조국애(민족애)
- (4) 다른 나라와의 문화 교류의 필요성(국제우호)

마) 통일·안보 생활

- (1) 남북 분단의 아픔(남북분단 인식)
- (2) 우리 나라의 안보와 우리들의 생활(국방·안보)
- (3) 평화적인 통일과 무력에 의한 통일(통일)

<6학년>

가) 개인 생활



- (1) 자기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성실)
- (2) 적성에 알맞는 일과 앞날에 대한 설계(자주)
- (3) 바르고 깊은 생각(사려)
- (4) 정신적 가치와 물질적 가치(절제)
- (5) 옳은 신념과 꾸준한 실천(실천의지)

나) 가정·이웃 생활

- (1) 예절의 정신과 형식(예절)
- (2) 친척 간의 화목한 생활(가정애)
- (3) 사랑과 자비의 마음(관용)

(4) 손아랫 사람에 대한 사랑과 웃어른에 대한 공경(경애)

(5) 우리 고장 발전에 협력할 수 있는 일(애향)

다) 시민 생활

(1) 법을 지켜야 하는 까닭(준법)

(2) 다른 사람의 의견 존중(타인 존중)

(3) 봉사하는 마음(협동)

(4) 개인의 이익과 공동의 이익과의 조화(공익)

(5) 정의로운 사회(정의)

라) 국가 생활

(1) 자유 민주 국가에 사는 우리의 긍지(국가애)

(2) 나와 나라 발전과의 조화(국가발전 협력)

(3) 외래 문물의 도입과 우리 문화 발전(민족애)

(4) 세계 평화에 기여하려는 자세(국제 우호)

마) 통일·안보 생활

(1) 우리 체제의 우월성과 북한 공산 체제의 문제점(북한 현실 비판)

(2) 자주 국방의 자세(국방·안보)

(3) 평화 통일을 위한 우리의 자세(통일)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초등 도덕교과에서 국제화와 관련하여 다루고 있는 소단원은 겨우 3단원에 불과하다. 전체 소단원은 86개 단원이 다. 그러니까 국제화 내지 국제이해를 위해 다루고 있는 소단원은 86개 단원중 3단원만이 할애되고 있는 것이 된다. 여기서 1단원은 5학년에, 나머지 2단원은 6학년에 할애되어 있다. 도덕과의 내용조직의 원칙에 의하면 개인, 가정, 지역 사회, 국가, 국제 사회와 같은 점차 확대되어

생활의 장을 고려하여 내용이 조직되었음을 밝히고, 국제화와 관련한 단원의 설정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그간에 우리 나라가 서구 문물의 무차별한 도입으로 인하여 전통문화가 퇴조하고, 가치관의 혼란이 초래되어 이를 우려하는 소리가 높았다. 이러한 현실적인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설정된 내용이 ‘외래 문물의 도입과 우리 문화의 발전’이다.

국제 교류가 빈번한 오늘의 현실에서 국수주의(國粹主義)적인 민족 문화 교육을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근대화와 산업화라는 명목으로 전통적인 가치나 문화를 경시하고 버려야 한다는 논리 또한 위험하다. 그러므로 자라나는 세대에게 우리의 확고한 민족 문화 의식을 바탕으로 외래 문물을 주체적으로 수용하는 자세를 길러 주어야 한다. ‘세계 평화에 기여하려는 자세’는 세계 평화를 지향해 나가는 건전한 가치관을 육성하기 위해서 선정된 내용이다. 오늘날의 국가 생활은 국제간의 교류 없이는 지탱해 나가기 어렵기 때문이다.”<sup>22)</sup>

“확고한 문화의식을 바탕으로 외래 문물을 주체적으로 수용하려는 자세를 길러주기 위해서” 단원을 설정했다는 것은 매우 적절하다. 그러나 이미 ‘발등의 불’이 되어버린 국제화의 흐름에 비추어 볼 때 ‘대목’에 대한 자기성찰만으로는 부족하다 아니할 수 없다. ‘대목’에 대한 자기성찰과 아울러 ‘가지’에 대한 성찰도 매우 중요한 때인 것이다. 이러한 인식에서 우리는 현행 도덕교육의 내용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sup>22)</sup> 상계서 P.19

보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에서 우리는 현행 도덕교육의 내용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우리의 주장이 반드시 국제화와 관련한 ‘장’ 내지 ‘대단원’으로서 ‘국제 생활 영역’의 신설만을 시사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다가오는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윤리는 매우 다양하면서도 인간관·윤리관에 있어서 근본적인 사고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기술·정보화사회가 가져올 인간소의 문제라든지 환경윤리 문제들은 개인윤리 차원에서도 중요히 다루어져야 할 문제들인 것이다.

#### IV. 국제화시대의 도덕교육의 새방향

그렇다면 국제화·세계화에 따른 도덕교육의 새방향은 어떻게 구도잡아 갈 것인가? 국제화·세계화란 국제적인 가치, 규범, 제도와 관행 등이 국내에서도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것이라 하였다. 물론 국제화가 이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마구잡이식으로 국제화의 흐름에 수용당해서는 안된다. 그래서 우리는 주체적 수용, 창조적 수용론을 제기한 바 있다. 특히 다가오는 미래사회에 있어서 윤리학적으로 가장 큰 도전이 어떤 특징의 도덕적 가치기준을 세우기 어렵게 하는 점에 있다고 한 우리의 관점이 틀린 것이 아니라면 국제화에 대한 대응자세는 더욱 유의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 유의하여 새 도덕교육의 기본적 지향은 ‘주체적이고 창조적이며 국제적인 안목을 지닌 사람’을 길러내는 데 두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기본방향을 중심으로 하여 도덕교육의 교육과정도 보완되어야 할 것임을 물론이다.

## 1. 방향모색의 이념적 지표: 21세기적 인간상

‘주체적이고 창조적이며 국제적인 안목을 지닌 사람’이 함의하는 바란 무엇인가? 우리는 앞에서 다가오는 미래사회의 특징을 6가지로 유형화한 바 있거니와, 이러한 6가지의 국제적인 흐름을 직시하면서 변화에 창조적으로 대응할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여기서 우리가 논의할 국제화와 관련한 21세기적 인간상의 대체적인 모습이라 생각한다. 먼저 이와 관련한 여러 제안들을 검토하는 것부터 시작하기로 하자.

미래사회에 대비해 길러야 할 인간상의 문제는 그동안 여러 면에서 제안되었다. 예컨대, 교육개발원(1986)은 주체적, 지성적, 도덕적, 민주적, 창조적, 국제적 인간과 건강한, 그리고 학습하는 인간을, 교육개혁심의회(1987)는 자주적·도덕적·창조적 인간이라 하여 크게 세가지 면으로 포괄하였고, 최근 교육정책자문회의(1992)에서는 「교육발전의 기본구상」에서 ① 공동체의식을 갖춘 도덕적인 사람, ② 인간을 존중하는 사람, ③ 열린 마음과 창조적 능력을 지닌 사람, ④ 세계시민적 자질과 미래투시적 안목을 지닌 사람, ⑤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사람을 들어 한마디로 ‘건강한 한국인’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sup>33)</sup>

한명희는 제6차 교육과정의 개정방향이라는 논고에서 2000년대 한국사회의 미래상을 “정치적으로 민주화·자율화되고, 경제적·문화적으로 고도산업, 정보화사회, 복지 문화사회를 추구하게 될 것이며, 국제화 추세와 함께 통일을 지향하는 여건이 성숙될 것”이라 전제하면서, 이러한 사회여건을 고려하여 우리의 교육이 추구해야 할 인간상으로 ① 자주적 인간: 개성있고 자율적인 사람, ② 창조적 인간: 창의성을 가지고 실

<sup>33)</sup> 이순형(1994) “21세기가 요구하는 인간상”, 『교육제주』 83호 P.16

천하는 사람, ③ 협동하는 사람:더불어 살며 협동하는 사람, ④ 건전한 인간:몸과 마음이 건강한 사람으로 요약하고 있다.<sup>24)</sup>

한편, 이순형은 지난 한국교육학회 창립 40주년기념 학술대회의 주제 발표에서 미래사회의 특징을 안정된 민주사회, 고도산업·정보화사회, 풍요로운 복지사회, 운택한 삶을 창조하는 문화사회, 국제화사회, 지구촌사회로 유형화하고 각기 그에 따른 인간상을 ① 투철한 민주의를 지닌 사람, ② 창조적인 능력을 지닌 사람, ③ 성숙한 도덕의식을 지닌 사람, ④ 심미적이며 정서적으로 안정된 사람, ⑤ 주체적인 사람, ⑥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 등을 제시하고 있다.<sup>25)</sup> 특히 그는 길러야 될 각 인간상에 따라 ‘복돋우어야 할 행동특성’을 구체적으로 도표화하여 제시하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그의 구체적 제안은 우리의 논의를 진전시켜 나가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그것을 여기에 소개하기로 한다.

<표1> 21세기가 요구하는 인간상과 행동 특성<sup>26)</sup>

미래사회의 특징 길러야 할 인간상	복돋우어야 할 행동특성
안정된 민주사회 투철한 민주의를 지닌 사람	• 자주자립의 주인정신
번영된 통일국가 을 지닌 사람	• 자신의 가치와 능력에 대한 자신감
	• 공동체 의식과 그 발전에 헌신하는 태도
	• 참여의식

<sup>24)</sup> 한명희(1991) “교육과정 개정방향:제6차 교육과정의 개정”, 「교육월보」 통권 제119호, P.34

<sup>25)</sup> 상계논문, P.17

<sup>26)</sup> 이순형, 전계논문 P.17



고도산업사회 과학기술사회 지가사회 정보화사회	창조적인 능력을 지닌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래 지향성</li> <li>• 과학적인 사고방식</li> <li>• 합리성과 독창성</li> <li>• 진취적인 개척정신</li> <li>• 성취지향성</li> </ul>
풍요로운 복지사회	성숙한 도덕의식 을 지닌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직하고 성실함</li> <li>• 투철한 책임의식·직업윤리</li> <li>• 타인에 대한 관용</li> <li>• 공익과 봉사</li> <li>• 사회정의에의 민감성</li> <li>• 검소한 소비생활</li> </ul>
윤택한 삶을 창 조하는 문화사회	높은 심미적 안 목을 지닌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연과 예술의 사랑</li> <li>• 정서적 안정성</li> </ul>
국제화 사회 개방 사회	국제적인 안목을 지닌 사람 주체적인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적 시야</li> <li>• 세계시민의식:호혜·평등·협력</li> <li>• 자아정체감</li> <li>• 강한 민족문화의식과 투철한 역사의식</li> </ul>
지구촌 국제경쟁사회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전한 민족주의 의식</li> <li>• 상호존중감</li> <li>• 평화주의</li> <li>• 공생사회의식</li> </ul>

또한 송상순은 국제화가 어차피 수용하거나 또는 기필코 추진해 가야 할 일이고 또한 그 성공적 수행에는 가치관 전환이 필수불가결의 것이라 보고, 국제화를 맞아 특히 요청되는 중요한 가치관 내지 사고방식들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국제화가 성공적으로 수행되어 나아가는 데 긴요한데도 우리 교육이 아직

제대로 길러주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가치관들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sup>27)</sup>

#### 1) 다원주의지향의 가치관

국제화란 동질성이 비교적 커서 서로 알고 받아들이기가 쉬운 국가 단위의 생활이 그렇지 못한 세계단위의 삶으로 변형되거나 확대시켜 나아가는 과정과 노력을 의미한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먼저 인종·언어·종교 및 가치관이라든가 정치·경제·사회·문화적인 생활 그리고 교육활동 등 온갖 부문에서 그제 개인이든 집단이든 간에 남들이 지니는 자산이나 또다른 남들과도 다른 독자성(uniqueness)이나 개별성 내지 이질적 요소들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이해하고 수용하는 데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의 가치관을 다원주의적으로 전환함으로써만 우리의 국제적인 적응력과 주도적 역할의 활성화를 증대시켜 갈 수 있기 때문이다.



#### 2) 공존공영지향의 가치관

국제화의 성공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상호협력을 증진시키고 거기에서 얻는 이득을 그들과 함께 나눠 누리는데, 그런 공동체적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너와 나 모두의 공존공영을 추구하는 가치관 역시 국제화시대에 우리가 필수적으로 길러 지녀야 할 가치관 내지 사고방식들 중의 하나이다.

국제화시대에는 나만이 이겨서 얻고 그러기 위해선 남들은 피해서 잃어야 한다는 승/패 내지 득/실적 사고방식을 불식하고, 대신에 함께

<sup>27)</sup> 송상순, 전계논문, PP89~95

이기고 얻으려는 승/승 내지 득/득의 가치관을 지니고 살아갈 필요가 있다. 서로간의 거래에서 한쪽이 완승자가 되고 다른 쪽이 완패자가 되는 Zero-sum game이 아니라, 당사자 모두가 승리자가 되어 이득을 보는 Positive-sum game을 하고자 하는 사고방식의 바탕위에서만 국제화는 제대로 지탱되고 성공될 수 있는 것이다.

### 3) 공정경쟁, 과정중시 및 내실(內實)지향의 가치관

국제화시대에는 임시변통이나 편법, 벼락치기의 졸속 등으로 비록 과정이 부실하고 심지어는 불법무도한 수단을 쓰더라도 단시간 안에 외형적인 '실적'의 수치를 높이는 데 성공하자는 것과 같은 당시당장의 외화(外華)만을 추구하는 사고방식에서 탈피하지 않으면 안된다. 게임 규칙을 지키는 공명정대한 경쟁에서 정정당당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웅골찬 실력을 길러 갖추으로써 장기적으로 실속을 기해가는 공정경쟁의 과정을 존중하면서 내실을 지향하는 가치관을 지닐 필요가 있다.

### 4) 화이부동(和而不同)지향의 가치관

국제화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성공적인 대외협력과 대외경쟁이, 또한 그런 대외적 과제의 완수를 위해서는 그에 선행·병행하여 우리 자신의 내실을 다지는 일이 필요하다. 그러한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화이부동으로 자중자애하는 가치관을 지니고 자강불식의 노력을 하는 삶의 자세가 요청된다.

우리가 자기나름의 모습을 잃고 다른나라들을 따라 닮아간다면, 그것은 혼합형과 또는 국적·정체의 불명화이지 국제화라 말할 수 없는 것이다. 국제화란 자신에 대한 주체성을 지니고 우리의 고유성을 세계적

보편성으로 넓혀 나감으로써 우리의 것이 단지 우리에게만 소중한 게 아니고 전 인류에게도 또한 귀중한 것임을 입증해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 2. 외국의 국제화 교육

세계의 선진국들은 앞으로 전개되어 갈 지구촌의 변화를 조망하면서 각국의 나뉠대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등 다방면에 걸쳐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하겠다. 그 중에서도 이웃나라 일본은 앞으로의 국제화 세계화 시대에 부응한 가장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나라 중의 하나로서 여기서는 교육에 관한 대응방안을 간략히 고찰 제시하므로써 본 연구의 논증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자 한다.

일본인들의 일반적 성격은 세계에 대하여 구미 지향성과 아시아 경시성을 동시에 내포하여 구미인들에게는 열등감, 아시안인들에게는 우월감을 가지고 있으며, 자기가 소속한 내부집단에는 헌신적 봉사를 하지만 외부 집단에 대해서는 배타적이거나 경쟁적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일본인은 조직이나 집단을 중시하고 개인의 주체성이나 독창성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고, 아직 국제 교류의 경험이 부족으로 다른 인종이나 국민 풍습이나 습관을 가진 사람들에 대하여 호기심은 표하지만 이를 근본적으로 받아들여 교류를 깊게 하거나 자기와 같은 맥락에서 외국인을 상대하지 못하는 닫혀진 사고의 체질에 대해 스스로 비판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국민성을 간파한 일본 문부성은 교육정책적으로 국제 이해 교육에 대한 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앞으로 닥쳐올 국제화

시대에 대응해 나가고 있는데 그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sup>1)</sup>

국제 이해의 목표를 “세계에 열린 일본인이 갖추어야 할 인간상”이라 내걸고 첫째 21세기의 교육목표로써 ㉠ 넓은 마음, 튼튼한 몸, 풍부한 창조력 ㉡ 자유·자율과 공공의 정신을 지닌 세계속의 일본인으로 국제화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둘째, 지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도 중점으로는 ㉢ 국제사회에의 협력정신의 육성 ㉣ 자국을 인식하면서 이문화 이해와 그의 존중 ㉤ 표현력의 향상 ㉥ 개인의 확립과 개성의 존중으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은 국제 이해 교육목표의 영역을 신 유치원 교육 요령, 소·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신학습 지도요령에 포함시켜 구체적인 내용을 분석하고 유아, 아동, 학생의 발달 단계에 의한 학습의 체계화를 꾀하면서 세계로 열린 일본인 육성을 실천하는 절차와 과정을 명확히 해 놓고 있다. 그리고 의사 소통을 위한 외국어 교육도 정책적으로 안을 마련하여 활발히 진행 중이며 자국내의 교사교육, 유학생 교류와 지원확대 등 외국어와 외국문화 이해에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일본어(국어)를 세계에 보급하는 교육활동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국제 이해 교육에 있어서 동경도 교육위원회 제3차 장기계획에 의하면 ㉦ 도시 외교를 통한 세계의 공헌 ㉧ 도민의 국제성을 기르는 환경만들기 ㉨ 외국인에게도 친숙하기 쉬운 동네 만들기의 3개 항목을 들어 세계와 교류를 지향하는 국제화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리고 국제 이해 교육의 기존 구상으로는 세계인으로부터 신뢰받고 존경받는 일본인으로서 나아가 국제사회에 참여하고 협력하는 능력과 태도 육성이라는 목표아래 일본인으로서의 주체성과 국제인으로서의

<sup>1)</sup> 한상진 일본 교육의 최근 동향 교육월보 1994. 6호 P.80

일본인을 하위 목표로 제시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본인의 주체성은 일본인으로서의 자각성에 의거 풍부한 창조력을 가지고 새로운 문화 발전에 공헌하고 일본 문화와 전통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여 창조적 발전을 꾀하는 것이며 국제인으로서의 일본인은 상호 의존 관계를 이해하고 국제 능력을 완수하는 개인과 국가의 역할을 바르게 인식하고 외국의 생활과 문화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깊게 하는데 있다고 한다. 지도 관점을 이 문화 이해, 인간이해, 자기 표현의 세가지인데 이 문화 이해는 일본과 외국의 문화 차이를 바르게 이해하고 이를 존중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이며 인간이해는 자기와 다른 생활 방식을 가진 사람을 인정하고 이를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공통성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이다. 자기 표현력은 자기의 생각을 확실하게 표현하고 상대방의 기본과 상통되는 표현과 언어 소통 능력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와같이 일본은 국제화 세계화에 대처한 발빠른 교육정책을 수립하여 교육에 임하고 있다.

이상에서 제 학자들과 일본의 국제화 교육방안이 제시하는 21세기적 인간상과 국제화의 방향을 살펴보았거니와, 주지하듯이 21세기적 인간상에 대한 제 학자들의 견해는 거의 일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상의 견해들은 몇 가지 결정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이순형의 제안을 중심으로 제기하기로 하면, 기술·정보화시대는 분명 창조적인 사람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과학의 인간화를 추구할 줄 아는 사람’을 길러내는 것이다. 또한 과학과 인간중심주의적 사고에서 비롯된 지구의 환경문제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우리의 관념을 근본적으로 바꿔 접근하는 인간관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성숙한 도덕의식은 2 세기적

문화논리가 무시된 채 이룩될 수 없는 것이며 거기에는 각 개인들의 실존적 공존을 추구하는 윤리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러한 몇 가지 보완점들은 특히 도덕교육의 분야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들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송상순의 국제화시대에 지녀야 할 가치관으로서 다원주의적 가치관, 공존공영지향의 가치관, 공정경쟁 과정 중시 및 내실지향의 가치관, 화이부동지향의 가치관을 들어 자국의 주체성 확립을 강조하고 있는데, 사실상 현재까지 지너온 가치관에 대하여 확실하고 분명한 변혁을 요구하고 있음은 자명한 일이라 하겠다. 또한 일본의 국제화 교육의 정책적 제도개선과 방향 모색에서도 자유, 자율과 공공의 정신을 지닌 세계속의 일본인, 국제사회에서의 협력정신육성, 자국을 인식하면서 이문화 이해와 그의 존중등의 국제화 교육목표를 설정하여 자국의 주체성 내지 정체성을 최우선하면서 이문화의 이해와 존중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 구도를 잡고 있다.

이상을 종합하여 우리가 주장하는 21세기적 인간상을 거시적으로 제시해 보기로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적인 안목을 가지고 주체적 수용을 할 줄 아는 사람이다. 둘째는, 국제적 흐름 속에 내포된 보편적 가치 내지 규범을 신념화한 사람이다. 대체로 이러한 인간상을 길러내는 측면들이 교육과정 속에서도 반영되고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 3. 교육과정상의 모색

#### 1) 교육과정의 구성의 기본방향

위에서 우리는 국제화와 관련한 21세기적 인간상을 거시적으로 제시 하였거니와, 사실 여기에 함축된 의미는 다양하다. 이를 좀 더 구체화 하는 것이 바로 교육과정 보완의 방향이 되어야 하리라 본다.

① 국제적 안목을 가지고 주체적 수용을 할 줄 아는 사람

우리의 교육이 놓여 있는 역사 사회적 상황은 국내외적으로 대단히 유동적이고, 그 변화의 범위는 대단히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 특히 국제화·세계화의 물결은 더 이상 ‘강 건너 불’이 아니라 ‘발등의 불’이라 하였다. 19세기 말처럼 나라의 문을 닫아 걸고, 우리끼리 살 길을 찾는 길이 있으나 그것은 자멸의 길이다. 이러한 상황을 직시하는 안목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이다. 그리고 주체적 수용이란 앞선 ‘예비규정’이 있어야 가능하다. 이를 우리는 한마디로 ‘개방적 민족주의 의식’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여기에는 보다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의미가 깃들여 있다.

우리 민족은 옛부터 합리적인 보편가치를 잘 수용하는 전통을 지켜왔다. 앞선 중국문화의 수용에서도, 또한 지난 세기 서구문물을 수용함에 있어서도 우리민족은 그것이 합리적인 것이면 그대로 수용하여 우리 것으로 만들어 왔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강대국들의 침략을 수없이 받아온 민족인 우리는 어느결에 사대주의에 물들게 되었고 새로운 문화 수용에 뚜렷한 주체성이 없이 무조건 수용 내지는 무조건 배척하는 맹목적 문화생활에 매우 익숙했던 부류의 국민들도 없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한가지 문화를 받아들일때에도 다각도로 비판하거나 논의 고찰해 보고 우리의 현재 실정과 그 문화의 희석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이론이 전혀 없이 수용되어 온 사례들이 적지 않다고 본다. 그렇



지만 단일 민족의 강한 내적 요소들은 그리 쉽게 흔들리지 않았으며 이것은 오히려 전통과 예비규정을 가지고 수용해온 즉 창조적 수용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이 창조적 수용능력을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교육하여야 한다. 지금도 바로 이러한 전통의 경험을 살려 적극적으로 수용 대처해 나가며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전통문화의 세계화를 열어나가야 한다.

② 국제적 흐름 속에 내포된 보편가치 내지 규범을 신념화한 사람

새질서의 가장 두드러진 특성의 하나는 보편성이라 한 바 있다. 온 세계가 다 인정하는 준칙, 가치, 관행, 생활양식이 생겨난다. 우리의 법과 다르다고 거부할 수 없는 공통의 규칙이 있고 우리의 가치와 다르다고 무시할 수 없는 보편가치가 우리에게 강요되게 된다. 이러한 보편가치는 말할 것도 없이 다가오는 미래 국제사회의 제반 특징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인권존중, 개인자유와 창의성의 존중, 민주시민의식, 환경 파괴규제, 다원화된 생활양식 등이 보편적 가치의 흐름이 될 것이다.

새질서는 자율질서가 될 것이다. 특정이념이나 폭력으로 다른 나라에 강요하지 못한다. 주어진 규칙에 따라 무한경쟁을 하게 되는 것이 새질서의 흐름이다. 국제적 게임의 룰을 지키는 가운데 경제적 부를 쌓아가는 나라가 강대국이 될 것이다. 게임의 룰을 무시하는 나라는 강력한 국제적 제재를 받게 되고 고립화의 길을 면치 못한다. 또한 미래사회에서는 고도산업기술의 소프트화와 정보화가 진행된다. 이러한 기술에 뒤쳐지면 우리는 무한경쟁의 시대에 살아남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엄청난 창조력과 용기를 필요로 하고 있다. 그와 아울러 이러한 기술 및 정보화사회는 인간성의 소외 내지 파괴를 가져올지 모른다는 도덕적 도

전에 직면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과학의 이념화, 인간화가 모색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새로운 과학기술의 개발은 동시에 환경문제의 해결책까지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 환경전문가들은 과학기술의 개발로 환경문제의 치유가능성에 회의를 보내는 사람이 많다. 그리하여 그들은 근본적인 지금까지의 인간관의 변화만이 그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sup>28)</sup> 예컨대, 방영준은 환경윤리를 정립해 나가기 위해서는 자연에 대한 관리자로서의 인간관, 기계론적 자연관, 이성론적 인간관, 공리주의적 인간관과 같은 전통적 인간관 내지 자연관에서 벗어나 탈인간중심 윤리관 정립, 전일적 우주관의 정립, 진보이념에 대한 재검토, 과학기술의 인간화, 소비윤리의 정립 등을 주장하고 있다.<sup>29)</sup> 이러한 방영준의 처방의 예들은 서양적 전통보다는 동양적 사상전통에서 더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제반 사항들이 교육과정 속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미래사회는 더더욱 인문성의 교육과 시민교육, 모든 사람의 삶의 질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문화와 가치를 서로 인정하는 가운데 공존의 윤리성을 익혀나갈 것도 요구하고 있다. 인문교육은 인간을 문화적으로 자유케하는 교육으로서 이 과정을 통하여 자신을 이해하고, 자기자신을 표현할 줄 알고, 그리고 보다 넓은 세계를 인지하거나 감상할 줄 알게됨으로서 보다 높은 삶, 보다 아름다운 삶, 보다 가치로운 삶을 체험케 하는 것이다. 시민 교육은 민주주의를 이상으로 하는 바람직한 인간관계 및 집단과정의 교육

<sup>28)</sup> 예컨대, 환경문제에 대한 生態論的 接近을 주장하는 자들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의 대표적인 학자는, Ragnar K.Kinxelbach(1989), *Orologie, Naturscaitz, Nmweltschutz*, Darmstadt를 들 수 있다.

<sup>29)</sup> 방영준(1993) “환경윤리”, 전계서 PP176~203

으로서 인권존중, 책임완수, 협동, 약속이행, 민주적 과정 및 방법의 습득등은 국내적 차원에서의 민주시민공동체를 유지시켜 나가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세계시민으로 가는 데에서도 꼭 필요한 가치들이다. 한편, 새질서에서는 다양한 문화가 번창할 것이다. 세계 인류의 공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 이외에는 모든 가치, 제도, 믿음, 삶의 양식이 허용되는 질서가 될 것이며 이에 따라 다양한 전통을 가진 다양한 문화가 함께 펼쳐질 것이다. 이러한 문화환경이 개인적으로는 가치관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고 국가적으로는 정체성을 잃은 국민으로 전락하게 할 수도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특히 윤리학적으로 도덕적 평가기준의 사실상 붕괴라고 보여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실존의 윤리, 차이와 다름을 인정하는 윤리, 형제애의 윤리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것으로 다가오고 있다.

## 2) 교육과정 구성의 주안점

교육과정의 주안점으로는 이상과 같은 기본방향이 보완되는 쪽으로 교과서의 구성이 보완되어야 한 것이다. 제1차 교육과정에서부터 제4차 교육과정까지의 개정 이유는 주로 국내의 정치·사회적인 여건의 변화와 교육과정이론의 변화였으며, 제5차 교육과정의 개정은 외적 요구보다는 교과교육의 내적인 문제를 시정하고 보다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한 것이라고 한다.<sup>40)</sup>

한편, 제6차 교육과정의 개정이유는 2000년대를 앞두고 펼쳐지고 있는 국내외적 환경변화와 현행 교육과정상의 제반 문제점의 보완이라는

<sup>40)</sup> 교육부(1993) 「도덕:국민학교 교사용 지도서 6-2」

데 그 근거를 두고 있는 듯하다.<sup>31)</sup> 여기서 국내외적 환경변화란, “2000년대의 한국사회는 정치적으로 민주화·자유화되고, 경제적·문화적으로 고도산업, 정보화사회, 복지 문화사회를 추구하게 될 것이며, 국제화 추세와 함께 통일을 지향하는 여건이 성숙될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교육과정의 구성방향은 ① 민주시민 공동체 형성에 역점을 두는 교육, ② 변화에 대한 창의적 대응력을 배양하는 교육 등을 들고 있다.<sup>32)</sup> 또한 교육과정 개정의 주안점은, 민주시민 공동체 형성에 역점을 두는 교육을 위해서 ① 민주시민의 능력과 태도의 강화, ② 전 교육과정에서 도덕교육화와 학교급별 특성화에 중점을 두며, ③ 통일에 대비하는 교육에 주안점을 둔다. 그리고 변화에 대한 창의적 대응력을 배양하는 교육을 위해서는 ① 정보처리능력과 창조적 사고력에 역점을 두는 교육, ② 과학기술교육과 진로지도교육의 강화, ③ 국제이해교육의 강화, ④ 전인교육, 정서교육의 강화를 통한 인간교육의 강화 등에 주안점을 둔다고 하고 있다.<sup>33)</sup>

이상과 같은 제6차 교육과정의 개정방향은 매우 적절하다고 보아지며,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해온 관점과도 거의 일치하는 것 같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국민학교를 포함한 전 중고등학교까지의 대체적인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또 도덕교과 뿐만 아니라 전 교과에 대한 개정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본래 우리의 연구목적에 맞는 수준으로 끌어내려 초등 도덕교육의 교육과정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하자.

그러나 논의의 실마리는 6차 교육과정의 개정안에서 다시 출발하자.

<sup>31)</sup> 한명희(1991), 전계논문 P.34

<sup>32)</sup> 상계논문 Ibid

<sup>33)</sup> 상계논문 Ibid

여기에서 도덕교육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몇가지 점이 있는데, 그 첫째는, “모든 교육과정의 인간화를 통하여 사회과는 물론 국어, 영어, 과학, 예술, 체육, 실과 등의 교과에서 도덕적 가치 지향의 의미를 사고구조와 잠재적 의미구조의 배려하에 편성한다.”는 것과, 둘째, “모든 관련 교과에서 시민성과 환경교육을 강화하되, 특히 공통필수 과목인 ‘현대과학과 인간’, ‘현대사회와 시민’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게 하며, 독립선택교과로서 환경교육을 신설한다”고 한 점이다.

여기서 첫째의 안에 우리도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그것이 도덕교육 시간 배당을 줄이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제6차 교육과정은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다. 김재복은 「유치원·국민학교 교육과정의 개정」에서 ‘유용성과 효율성의 강조’를 명목으로 그러한 점을 밝히고 있는데, 즉 “학교교육의 모든 활동속에서 통합적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한다”고 하고 있다.<sup>4)</sup> 이러한 안은 그동안 ‘도덕과의 설정 근거’로서 들고 있는 이념적 근거나 현실적 근거는 차지하더라도 ‘학문적 근거’에 대해 근본적으로 배치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여기서 학문적 근거란 다음과 같은 것이다.

“현대에 이르러 지식의 양적 증가가 가속되어 왔기 때문에 증가된 지식 모두를 학교에서 지도하기는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식교육은 지식의 양적인 면보다 질적인 면을 고려할 수 밖에 없다. 즉 학교는 지식의 구조적 특징과 방법론적 원리를 주된 관심사로 하여 지식교육에 임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그리하여 각종 교과가 종래에 다루고 있었던 잡다한 부대적 요소들을 버리고 그 교과 특유의 방법론

<sup>4)</sup> 김재복(1991), “유치원·국민학교 교육과정의 개정”, 「교육월보」 전계서 P.42

을 중시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이러한 경향으로 말미암아 도덕교육은 종래와 같이 여러 교과 활동 속에 포함되어 있을 수 없게 되었다. 과학적 지식의 탐구는 이론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치판단의 개념을 배격하고자 하며, 논리적 수학적 지식의 탐구는 엄격한 사고를 방해하는 정서와 감정의 개입을 금기로 여긴다. 그리고 가치 교과라고 할 수 있는 예는 교과는 주로 미적 가치에 관심을 두기 때문에 도덕적 가치의 문제에 관해서는 주의를 기울이기 어렵게 되었다.

이와 같이 도덕적 가치 판단의 능력이나 태도에 관한 일은 모든 교과로부터 밀려나고 있는 실정이다. 도덕성에 관련된 지식의 증대와 가치탐구의 방법론적 특수성은 별개 교과로서의 도덕과 교육을 요청하고 있다.”

결국 6차 교육과정의 안은 이상과 같은 지금까지의 학문적 성격이 바뀌어 이제는 다른 학문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도덕교육이 가능해지게 되었다고 보는 관점이다. 그러나 우리의 관점은 이와는 정반대에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논구해온 국제화·세계화의 추세라는 현실적 근거에서 더욱 그러하다. 우리는 앞에서 다가오는 문화논리는 다양화, 탈중심화, 해체화 등이고, 이러한 문화논리는 지금까지 통용되던 도덕적 가치기준까지 허물어 버리게 될 것임을 강조한 바 있다. 이러한 문화논리에 대한 도덕적 처방이 고작 ‘도덕교과의 해체화’에서 찾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매우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다음으로 둘째의 환경교육을 선택과목으로 하여 신설한다는 안에 대

해서도 기본적으로 동의 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제화가 ‘발등의 불’이라는 점에 유의한다면 환경교육은 결코 선택으로 미룰 주제가 아니라고 본다. 또 과학의 발달에 의한 환경문제의 해결을 시도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앞에서 환경문제의 접근 윤리학적 접근을 통해서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었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어떤 독립교과에서 못지 않게 환경문제에 대한 윤리학적 처방이 도덕교과의 구성에 포함되고 교육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특히 초등도덕교육의 강조점이 생활예절을 습득시키는데 주안점이 있다면 환경윤리가 초등도덕교과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은 강조되어 마땅하다.

또한 이러한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과학의 인간화’에 대한 측면도 도덕교과에 반영되어야 한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야기될 수 있는 인간소외문제라든지 인간성의 상실문제 등도 초등학교 수준에서부터 반영되어야 한다. 이외에 민주시민을 배양하는 교육 등은 현행 도덕교과서를 바탕으로 제6차 교육과정의 주안점들이 그대로 반영되면 무방할 것으로 보여 다른 논의를 생략한다.

끝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은 국제적 안목을 키워주기 위한 새로운 생활영역<sup>35)</sup>으로 ‘국제생활’ 영역이 필요한가 하는 점이다. 우리가 보기에 이 영역이야말로 다른 유관 교과들과 통합적으로 접근·교육되어야 할 영역이라고 보고 싶다. 다만 단원의 설정은 현재보다 넓혀야 한다. 그리하여 현재의 ‘국가생활’ 영역을 ‘국가·국제생활’ 영역으로 수정되면 될 것이다. 그래서 그 국제생활 영역에 1~2단원 또는 소 제재를 설정하여 선진국이나 또는 후진국의 아동들의 습관, 사고, 문제 해결 방법

<sup>35)</sup> 현행 교과서에서는 개인생활, 가정·이웃생활, 시민생활, 국가생활, 통일·안보생활의 5개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 글의 Ⅲ장 참조.

등을 경험하게 하면서 우리 어린이들이 생각이나 의지, 감정등을 자신 있게 표현해 나가는 가상적 교육내용을 설정하거나, 같이 어울려 생활 했던 실지사례를 교육내용으로 설정해서 자연스레 외국의 아동들과 간접적 접촉을 경험하게 하므로써 나중에 자라나서도 외국인과 자연스레 자기의 감정이나 생각을 표현해가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 저절로 국제화 세계화에 내포된 가치나 규범을 신념화한 사람으로 인격이 형성되어 갈 것이라는 가설을 유도해 낼 수 있다. 이제 국민 몇 몇 사람이 외국인을 상대로 했던 시대는 이미 지났다.

온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외국인을 스스럼 없이 대하고 같이 생활할 수 있는 힘을 국제화·세계화는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우리가 설정한 ‘국제적 안목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국제적 가치를 수용할 줄 아는 인간’을 기르는 목적이 희석화되어서는 안된다. 우리의 전통과 민족적 정체성을 키워주는 내용은 다른 생활영역에서 빈도있게 다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현행 도덕교과가 “전통가치가 전통적인 교육문화를 충분히 인정하고 그 장점을 키워 나가자는 입장<sup>36)</sup>”에 서서 도덕과 교육 내용의 대부분을 전통문화에 바탕을 둔 덕목에서 취하려 한 것은 매우 적절한 것이라 할 수 있다.

<sup>36)</sup> 교육부, 『도덕:국민학교 교사용 지도서』 전계서 P.12



## V. 결 론

본 논문은 이제 6년 앞으로 다가온 21세기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국제화’라는 새로운 흐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분석해 보았다. 또한 이러한 국제화의 도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교육이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를 주로 도덕교육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국제화를 촉진시키고 있는 큰 요인은 정보화의 물결이다. 정보화 시대라는 것은 여러가지를 뜻하지만 세계를 하나로 만들고 있다는 것으로 세계가 아주 좁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1992년 소련의 8월 정변이 일어났을 때 세계 곳곳에 방송되는 것과 같이 즉각 통신혁명이 이루어졌다. 교통의 발달도 국제화를 가속화 시키는 요인의 하나이다.

국제화를 어떻게 정의할까? 대체로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 (1) 국가간에 일어나는 인적·물적·문화적 개방과 교류를 가리키는 말이다.
- (2) 국경을 초월하는 삶의 단위의 확대와 경제적·정치적·문화적 상호 의존성의 증대, 문제의 세계성을 가리킨다는 것이다.
- (3) 정치적·경제적·생활문화적 측면에서 우리 사회의 제도·규칙·관행·습속·행동양식등에서 비합리적인 요소를 제거하여 합리화 하자는 것이다.(김성열)

이러한 국제화는 우리가 선택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닌 피할 수 없는 세계적 보편현상이기도 하고 우리의 생존전략이기도 하다.

국제화·세계화의 추세는 이제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수위로 다가

오고 있다. 그러기에 그것은 ‘강 건너 불’이 아니라 ‘발등의 불’이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가치와 문화가 우리에게도 예외없이 적용되는 시기가 오는 것이다. 이러한 국제적 통용 가치가 아무리 보편성을 띤 것이라 하여도 그것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한다면 우리 민족은 다양한 경쟁적 문화마당에서 정체성을 잃은 민족이 되고 말지도 모른다. 이런 점에서 도덕교육의 과제는 ‘주체적이며 창조적으로 국제화를 수용할 줄 아는 인간’을 키워나가야 할 과제를 안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현행 도덕교과의 교육과정은 개정 보완되어야 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러한 논리를 따라서 대체적인 초등 도덕교육의 새 방향을 모색하여 보았다. 물론 그것은 현행 도덕교과의 근본적인 차원의 개정이라는 입장보다는 수정과 보완의 차원에서 제안을 한 셈이다.

이제 글을 마무리하면서 부언해 두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국제화·세계화시대에 앞서 나가며 학생들을 지도해 나가야 할 위치에 있는 교육자들 곧 우리 자신들의 사명에 대해서이다. 어느 시대이고 교육자의 사명은 막중한 것이지만 시대가 급변하는 때에는 더욱 중요해진다. 앞선 세대가 축적해 놓은 지식과 그 시대의 보편적 가치, 그리고 그 시대에 알맞는 생활양식을 가르치는 것이 교육자의 일반적 사명이라고 한다면, 시대전환기에는 여기에 덧붙여 미래를 내다보고 아직 닳치지 않은 새로운 환경을 미리 소화하여 새시대에 맞는 지식, 가치, 생활양식을 가르쳐야 하는 임무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20세기가 아직 몇 년이 남았다고 하지만 우리 교육자에게는 이미 21세기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 참 고 문 헌

### 1. 단 행 본

- 교육부(1992) 「국민학교 도덕교사용 지도서」
- 한명희외(1994) 「국민학교 교육과정 해설」, 교육과학사
- 홍웅선(1988) 「새초등교육과정」, 교학연구사
- 권오정(1986) 「국제화시대의 인간형성」, 배영사
- 하인효(1987) 「후기산업사회의 가치관과 교육」, 예지각
- 한국교육개발연구원(1987) 「미래산업사회를 지향한 교육발전방안」  
한국교육개발연구원
- 한국교육개발연구원(1987) 「미래사회변화와 한국교육의 과제」  
한국교육개발연구원
- 한국교육개발연구원(1987) 「국제화에 대비하는 교육전략」  
한국교육개발연구원
- 한국교육개발연구원(1992) 「21세기의 사회, 인간 그리고 교육」  
한국교육개발연구원
- 한국교육개발연구원(1993) 「국민학교 교육과정 국제비교연구」  
한국교육개발연구원
- 중앙일보사특별취재팀(1994) 「아빠, 공부하기가 싫어요」, 중앙일보사
- 정범모(1989) 「미래의 선택」, 나남
- 정근모(1994) 「21세기로 가는 길」, 신원문화사
- 이원복(1994) 「나부터 변화하자」, 삼성경제연구소
- 존 나이스비트·배트리셔 애버던공저, 김홍기역(1990)  
「메가트렌드 2000」, 한국경제 신문사
- 유익서외(1994) 「아시아를 넘어라 태평양을 건너라」, 생각하는 백성
- 폴케네디저 변도은 역(1993), 「21세기 준비」, 한국경제신문사
- 공성진(1992) 「한국의 미래, 세계의 미래—도전과 선택」, 조선일보사
- 한백연구재단(1993) 「21세기 한국과 한국인」, 삼성출판사

## 2. 논 문

- 김경동(1993) “국제화와 지방화-개념적 고찰”, 1993년 한국사회학회 학술대회 「한국사회의 지방화와 국제화」 발표논문
- 김문환(1994) “한국문화의 국제화 전략”, 상계서
- 김상원(1994) “세계화를 위한 민족교육의 실천과제”  
「교육월보」 94년 2호
- 김성열(1994) “국제화시대의 제주고등교육”, 상계서
- 김세원(1994) “국제화의 자진조건” 「자유공론」, 94년 3월호
- 김여수(1994) “서구화, 국제화 그리고 세계화”  
「철학과 현실」 94년 봄호
- 김정규(1994) “이 문화접촉과 교육의 과제” 「교육월보」 94년 2호
- 김진현외(1994) “내가 생각하는 국제화, 세계화”  
「창작과 비평」 제22권 제2호
- 박길성(1993) “한국사회의 국제화 과정과 성격” 상계논문
- 송상순(1994) “국제화 시대와 가치관 교육” 제주국제협의회 주최  
「국제화시대와 제주교육세미나 논문집」
- 이상우(1994) “세계화시대-교육을 통한 창조적대응”  
한국교육개발연구원, 「교육개발」 통권 88호
- 이순형(1994) “21세기가 요구하는 인간상” 「교육제주」 제83호
- 이성호(1993) “21세기의 기초는 교육혁명에서” 21세기위원회  
「2020년의 한국과 세계」 동아일보사
- 이흥구(1993) “세계화로 향한 의식개혁의 과제” 「사상」 93년 겨울호
- 차인석(1994) “교육의 세계화와 세계화의 교육”  
「교육월보」 94년 2호
- 한명희(1992) “제6차 교육과정의 개정” 「교육월보」 제119호

(Summary)

## **A New Direction of Moral Education in The Age of Internationalization**

Lee, Jae-Bong

The Department of National Ethics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Ko, Seong-Joon

Now We have come to a period of change in the turning point of the century. Various assumptions about a man who has been familiar with each other, the functions of society and the working principles of society are rapidly changing. Thus, We fundamentally undergo some changes of axiom in those areas.

One of the many changes which we are immediately faced is what we call an internationalization. The phenomenon of globalization is accelerating because of the epoch-making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the technology of communications, as well as the rapid improvement of means of transportation.

Among the simple examples are the Uruguay Round,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and the Green Round for the preservation of environment as a world agreement, which will be sure to make our world of economy compete endlessly with other countries within the same field of life. Hence, We must plow through the waves of internationalization, not drift on the waves of it.

The task of moral education in the age of internationalization is to bring up a man of identity who can creatively accept the internationalization trend. If we accept the internationalization without criticism, we will lose our identity in a variety of competitive cultural fields. In this sense, the present curriculum of moral education should be revised and complemented.

Its direction must be toward the task of moral education, that is, education a man with an international outlook, who is eagerly willing to accept the international values.

-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1994